

★ 중앙교회 구역 모임(21-28)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 떡대가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던 1900년 초의 일화입니다.

최권능(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골에서 화전민들에게 전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묘안을 냈습니다.

“아이구 배야, 사람 살려!” 그는 산골짜기가 울리도록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인근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 모두 뛰어와 저마다 물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최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가시오.” 화전민들은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거야? 별 떡대가리같은 소리 다 들겠네” 하고 욕을 퍼부어했습니다. 최 목사님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의 떡이요, 떡 중에서 제일 머리가 되는 떡대가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느새 최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60-71)

※ 구역장 혹은 강사는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저자:한기채 목사)의 pp.138-140.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신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어려워했습니다.
2. 껌데기만 구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3.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나눔1.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64절)

나눔2.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68-69절)

나눔3. 믿음이 없는 자의 미래를 어떻습니까?(71절)

3. 은혜나누기

1)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함입니까?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함입니까?

2) 코로나 종식과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중보기도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우리 교회에 영적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성결교단의 모체교회로써 더욱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담임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영과 육의 편안한 안식 되게 하시고, 앞으로 교단과 교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으로 사용 받게 하옵소서

(4) '코로나19' 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회 되게 하옵소서.

(5) 멕시코 장차진 선교사

멕시코 은혜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성령의 공급이 넘치게 하소서

☎중보기도 핫라인 010-7528-3091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7월 생명운동캠페인 81 “바로 오늘, 레스 웨이스트(Less waste, today)”

/ 불필요한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여름 맞이 환경 캠페인, 자세한 사항은 후보 참조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3) 헌금

4) 주기도